

《나는 걸어요》 독서지도안



여러분은 어디쯤 걷고 있나요?
한 발짝, 두 발짝 세상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너에게!

- 작가_ 한지아 글 · 그림
- 출판사_ 풀과바람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유채꽃, 목련, 벚꽃, 개나리, 진달래…. 봄이 시작되면 우리 땅 곳곳에서 겨우내 웅크렸던 풀과 나무들이 기지개를 켜고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걷고 있나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산책하러 나가면 신기한 세상을 구경하느냐고 눈코 뜰 사이 없죠. 아이와 함께 봄나들이 떠나듯 책 속을 거닐어 보면 어떨까요?

《나는 걸어요》는 귀여운 고양이의 아침 산책길을 풍성하게 담아낸 그림책입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기분 좋은 바람, 향긋한 꽃향기, 새로이 만나는 친구들…. 한지아 작가는 산책길 아름답게 펼쳐진 자연과 그 속을 거닐며 느끼는 편안하고 행복한 감각들을 특유의 부드럽고 감성적인 그림으로 생생히 펼쳐냈습니다. 부드러운 선과 파스텔톤 색감이 돋보이는 그림은 한 편의 인형극을 보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칩니다.

똑똑똑, 청명한 아침 햇살이 창가를 두드리면 귀여운 아기 고양이는 살며시 잠에서 깨요. 아침 인사를 건네는 해님처럼 고양이는 방긋 웃죠. 그러고는 쓱쓱 깨끗하게 세수하고 산책을 준비합니다. 알록달록 꽃과 각양각색 버섯이 살아 숨 쉬는 초록색 숲. 높고 파란 하늘을 크고 둥글둥글 덩어리진 몸으로 총총 설 새 없이 떠다니는 양떼구름들. 근사한 산책길에는 또 무엇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산책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감각이 경쾌한 서사와 리듬감 있는 시적 언어, 부드러운 그림으로 전달됩니다. 두 뺨을 스치는 바람, 포근포근 발을 감싸는 땅의 감촉 같은 편안하고 행복한 감각들이 독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미소 짓게 합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세상을 향해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어린 독자들은 자신을 똑 닮은 고양이를 따라 흥미진진한 모험을 떠나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배우고, 주변 세계를 이해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한 걸음씩 씩씩하게 나아갈 겁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유아 0~3세
- 누리과정 연계 : 신체운동·건강 - 신체 활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 의사소통 - 듣기와 말하기
 -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 책과 이야기 즐기기
 -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더불어 생활하기
 - 사회에 관심 가지기
 - 예술경험 - 아름다움 찾아보기
 -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자연탐구 - 탐구 과정 즐기기
 -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 자연과 더불어 살기

• 지도 요점 :

걸음나비가 좋아 걷다 금방 지쳐도 고양이는 부지런히 걸어요. 향긋한 꽃향기를 맡고, 지지배배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다 보면 너무나 즐거워 발걸음이 점점 빨라집니다. 여러분도 ‘산책’을 좋아하나요?

3. 책 이해하기

(1) 아기 고양이는 누구처럼 방긋 웃나요?



- ① 공룡
- ② 엄마
- ③ 해님
- ④ 구름

▶ -----

(2) 고양이는 누구에게 인사하나요?



- ① 엄마에게
- ② 꿀벌에게
- ③ 아빠에게
- ④ 친구에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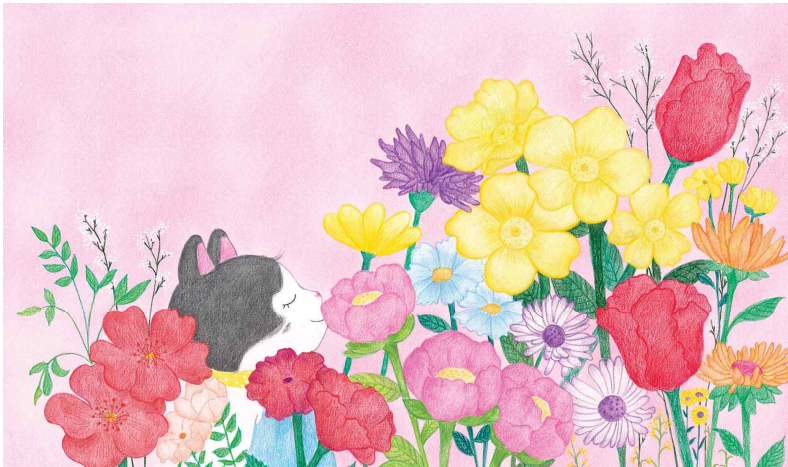
(3) 아기 고양이는 산책하려고 어디를 건나요?



- ① 파란 바닷가
- ② 노란 별판
- ③ 하얀 보도블록
- ④ 초록색 숲



(4) 고양이는 산책 중 어떤 향기를 맡나요?



- ① 향긋한 꽃향기
- ② 싱그러운 풀냄새
- ③ 텁텁한 흙내음
- ④ 톡 쏘는 과일향



4. 확장활동

(1)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홀로 나선 산책길. 꽃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부지런히 꿀을 모으는 꿀벌에게 고양이는 수줍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는 일상의 순간순간이 난생처음 하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처음 도전할 때 아이의 마음은 어떤지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2) 산책길, 고양이는 향긋한 꽃향기를 맡고, 지지배배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여러분은 산책할 때 어느 순간이 가장 좋은가요?



(3)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도 아이에게는 어려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내려 애쓰는 아이를 보면 안쓰러워 얼른 도와주고 싶죠. 하지만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도움이 아니라 직접 해 볼 기회와 든든한 응원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조심스레 걸음을 내딛는 아이를 향한 응원의 마음을 전해 주세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③ 해님 | (2) ② 꿀벌에게 | (3) ④ 초록색 숲 | (4) ① 향긋한 꽃향기

확장활동

- (1) 두근두근 너무 떨려서 가슴이 펑 하고 터질 거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엄마 아빠의 등 뒤에 숨고 싶어요. 등
- (2) 나무 그늘에 앉아 시원한 물을 마실 때 좋아요.
아빠와 개울에 사는 물고기 숫자를 세어 볼 때 좋아요. 등
- (3) 넌 정말 잘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용기를 내어 봐! 등